

“의견과 사실 뒤죽박죽...말의 범람이 불통 불러”



21일 오후 전남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6 한책 콘서트'에서 '라면을 끓이며'의 저자 김훈이 '말하기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전남대 '광주·전남 특' 김훈 작가 초청 한책 콘서트

‘라면을 끓이며’ 한책 선정

‘말하기의 어려움’ 강연

“말하기 보다 듣기 중요”

청중 400여명 몰려 인기

“나는 쓸 수 없는 것들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헛된 것들을 지켰었다. 간절해서 쓴 것들도 모두 시간에 쓸려서 바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늘 말 밖에 있었다. 지극한 말은, 말의 골레를 벗어난 곳에서 태어나는 것이리라.”

(김훈 '라면을 끓이며' 작가의 말 중에서)

전남대가 주최하는 '2016광주전남이 읽고 독하다'의 작가 초청 한책 콘서트가 21일 국제회의동(융복합)에서 열렸다. 올해의 한책으로 선정된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의 작가 김훈이 강사로 나서 '말하기의 어려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400여 청중이 몰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스타일리스트인 김훈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문흥독서사랑, Book 소리, 빛고을독서회, 낙서반 등 각급 학교와 시민들의 독서모임 회원들도 다수 참여해 책을 매개로 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의 한책으로 선정된 '라면을 끓이며'

는 밥, 돈, 몸, 길, 글 등이라는 소재를 아래 50여 개의 글들로 구성돼 있다. 각각의 글에는 저자가 일상에서 느끼고 사유한 삶에 대한 성찰, 단상 등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저자의 산문은 콘서트 주제였던 '말하기의 어려움'으로 수렴되는 특징을 보인다. 단호함과 강렬함으로 상징되는 문체는 오래 사유한 말을 글로 풀어낸 인상을 준다. 먹고 사는 문제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선에는 온전히 말로 표현하지 못한 작가 특유의 자의식이 배어 있다.

김 작가는 “인간관계 대부분은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말을 하면 할수록 소통은 커녕 단절을 부채질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단절의 한 원인은 정치적 양극화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지 않고 말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적 언어의 특징은 뻔뻔스러운 인데 의견을 사실처럼 말하고 이를 '정의'라고 말하는 행태가 유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언어의 범람은 우리시대의 단절이자 비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언어를 '무기'라는 관점으로도 이야기했다. 실제적인 무기에 비하면 언어라는 무기는 세상을 바꾸기에는 허약하고 아득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미를 앞세워 의견과 사실을 뒤죽박죽 섞어서 뱉어내는 말들은 알 수 없는 웅성거림으로 변질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웅성거림 위에 정치권력을 세우려하는 이들로 인해 언어는 허약하고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강연에서 학생과 시민들은 김훈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말'과 '언어'가 지닌 어려움과 가변성에 대해 숙고했다. 한편으로 작가의 이전 산문집 '풍경과 상처', '자전적 여행' 그리고 대표 소설 '칼의 노래', '남한산성'에 나오는 강렬한 문장들

을 읽는 듯한 감흥에 빠졌다.

“평소 김훈 작품을 좋아해 콘서트에 왔다. 압축적이며 간명한 문장임에도 천천히 씹어 읽어야 이해가 됐다. 오늘 강연도 그의 글이 지닌 사유와 미학을 느낄 수 있었다.”(문지환 국문과 대학원생)

“김훈의 글은 문체가 독특해 많이 좋아하는 편이다.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강의를 들으면서 글과 마찬가지로 말 또한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윤수민 신방과 1학년)

“베스트셀러 작가의 강연이라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왔다. '칼의 노래'에서 이순신의 고뇌를 잘 표현했는데, 사실은 일상에서 말하기 또한 이 같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시민 이상택 씨)

김 작가는 강연 내내 말하기의 어려움에 대해 다양한 비유를 들었다. 그런데 요즘처럼 ‘듣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남의 고통을 공감하고 공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민주화와 공공성을 논할 수 없다. 사상과 철학이 아닌 생활의 감각이 묻어나고 일상의 구체성이 담보되는 말하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물론 이것 또한 해답이 아니라 그만큼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김 작가는 말하기에는 정답이 없다는 말로 강연을 끝맺었다. 그러면서 개념이나 권력에 물들지 않는 언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남대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총 3만 528명이 투표에 참여, 김훈 작가의 '라면을 끓이며'를 '2016 한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한책 콘서트에 이어 10월 문학기행, 11월 한책 토론회, 12월 독서클럽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오영란 개인전

22~28일
무등갤러리

▶북 받으세요



아기자기한 조형언어로 행복한 세상을 캔버스에 담고 있는 오영란 작가가 22~28일 무등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올해 완성한 최근작 위주 20여점을 선보인다.

작품은 전반적으로 오방색 등 전통 색채를 사용해 밝은 분위기다. 복주머니를 그린 '북 받으세요', 원앙·달·꽃을 소재로 한 '기쁨이 가득한 날' 등은 명제에서 보듯 더 나은 내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실된 사랑'에는 고양이, 개, 소 등 인간과 친근한 동물을 등장시켜 주제를 전한다. '행운이 오는 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리라'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사계절 아름다움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도 전시한다.

오씨는 조선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 석사학위를 전공하고 신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 현대미술대전 추천작가, 도로인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는 광주 치평동에서 '영'화실을 운영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62-236-25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예고-中노신학원 미술교사 교류전

27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광주예술고등학교와 중국 노신미술학원 부속 중등 미술학교 교사들이 27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한중 미술교사 작품 교류전'을 갖는다.

한국 23명 중국 30명 등 미술교사(강사) 총 53명이 참여한다.

고양배 교사는 수채화로 하얀 목련을 표현한 '동행'을 출품한다. 김광웅 교사는 수묵담채 '알려지지 않은 산'을 통해 한국 자연미를 선보인다. 송선영 교사는 강아지와 정답게 노는 소녀를 소재로 삼은 조각 '철수와 영희'를 전시한다.

중국 야오 바이 교사가 그린 '청해(Listen the the Sea)'는 넘실거리는 파도 소리를 표현했다.

한편 광주예고와 노신미술학원은 지난 2009년 중국 심양에서 열린 학생작품 교류전을 시작으로 매년 합동전시회를 개최해 우호를 다지고 있다. 문의 062-360-843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윤성필 작 '遊戯'



전남대 한책 콘서트서 400여 청중들이 김훈 작가의 강연을 듣고 있다.

국·민·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문화대축전

2016 YEONGHONAM CULTURAL FESTIVAL

광주천변 특설 행사장(광주공원 앞) **9/30(금) ~ 10/2(일) 3일간**

충장축제 기간중

문화를 통한 교류의 장

어울림을 주제로 한 체험·참여 프로그램

영·호남 특산물 전시 판매

부스 참여업체 모집

영·호남 지역자치단체의 홍보 및 특산물 판매를 위한 부스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선착순 모집 배치)

문의 (062)220-0555, 010-7174-1257



화합과 상생으로
영·호남의 오작교를 잇다

주최

광주일보사

每日新聞社